

## 현장의 언어를 기술로 번역하다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방대한 행정 서식과 법 조항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마엇(MAOT)은 아날로그의 비효율을 디지털 모듈로 통합한다. 온톨로지(Ontology) 시와 실시간 데이터 분석으로 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 안전전문가를 서류 더미가 아닌 실제 현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기술이다. 그렇게 기록을 위한 행정을 넘어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마엇의 솔루션은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새로운 안전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글 박채림 사진 김재이

# MAOT

(주)마엇(MAOT)

### 안전의 본질을 기술로 되찾다

안전한 산업 현장을 지키는 힘은 직접 발로 뛰며 위험 요소를 살피는 안전관리자의 눈과 노동자의 주의 깊은 손길에서 나온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조금 다르다. 수백 개의 법 조항과 복잡한 행정 서식은 정작 안전의 주체인 사람들이 현장에 머물 시간을 빼앗고 있다.

(주)마엇(MAOT)은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기술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한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가장 필요한 곳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존재하고, 안전관리자는 모니터 앞이 아닌 실제 현장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아날로그의 비효율을 디지털로 걷어내는 일. 그것이 마엇이 추구하는 ‘사람을 향한 기술’의 본질이자,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한 모든 기술을 만들겠다는 그들의 ‘Make All Of Technology(MAOT)’ 정신의 핵심이다.

회사의 철학은 오동식 대표의 21년 현장 경험에서 비롯됐다. 대기업 건설 현장의 관리자로 일하며 세 차례나 중대재해 사고를 목격한 그는 깊은 부채감을 안고 스스로 질문을 던졌다. ‘왜 산업 현장에서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가?’ 사고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지만, 거대한 조직이 변화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다. 결국 그는 직접 산재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 각 기업에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곧바로 IT 전문가들을 영입해 2020년 법인을 설립하고, 현장의 언어를 기술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의 감각과 디지털 기술의 만남이 마엇의 시작이었다.





현재 마엣에는 현장 전문가와 IT 개발자가 함께 일하고 있다. 30여 년간 대기업 계열사에서 실무를 다진 베테랑부터 산업안전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획자, 그리고 AI 개발팀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람을 향한 기술'이라는 비전에 뜻을 같이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 구성은 마엣이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생리를 완벽히 이해하는 솔루션을 내놓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 행정의 늪에서 현장의 안전으로

물론 위기도 있었다. 법인 설립과 동시에 마주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신생 벤처기업인 마엣에 큰 시련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마엣은 이를 시스템의 완성도와 공신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전환했다. 그 결과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그리고 국가정보원(NIS)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정부 주요 인증을 차례로 획득하며 기술의 안정성을 입증시켰다.

그렇게 완성된 마엣의 핵심 솔루션인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MAOT Digital SHM System)'은 아날로그 문서 위주의 안전 관리를 완전한 디지털 전환(DX)으로 이끌어 준다. 또한, 1,200여 개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을 정교하게 모듈화하여, 고객사의 업종·규모·특성별로 300여 개의 기능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최적의 맞춤형 시스템을 제공한다.

기본적인 위험성 평가부터 협의체 회의 기록, 일일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작업허가서 작성 및 발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마엣의 시스템 내에서 통합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방대한 문서들을 즉각적으로 출력·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관리자의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준다.

여기에 이미지와 키워드를 기반으로 SI가 직접



위험성을 분석해 주는 MIRAS(MAOT Risk Assessment System, 2023년 안전보건공단 안전 신기술 인증) 기술은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해결해 준다. 모든 자료는 데이터베이스(DB)화되어 담당자가 교체되어도 즉시 활용이 가능하며, 이는 과거의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후임자가 본업인 현장 안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 데이터와 SI가 설계하는 '예측 가능한' 안전 현장

마엣의 기술은 담당자의 주관에 의존하던 기존 안전 관리를 객관적인 데이터(Raw Data) 기반의 과학적 관리로 진화해 준다. 이를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는 파편화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온톨로지(Ontology) AI'의 밑거름이 된다. 특히 대화 기반 시스템(TTS)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핵심 키워드를 포착해 안전 서류 초안을 자동 작성하며, 정보기기 사용에 서툰 노동자까지 배려한다.

편의성과 효율성 향상은 마엣 시스템의 가장 큰 실질적 성과다. 문서 위주였던 안전 관리를 완전히 디지털화하여 모바일과 웹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문서로 작성하고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게다가 카카오톡 연동으로 접근성을 극대화 해 행정 업무 시간과 비용을 20%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마엣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확보된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와 융복합 서비스를 고도화해, 궁극적으로 사고를 완벽히 예측하는 AI 기반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전문 용어 통·번역 기능 또한 마엣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대목이다. 일반 번역기가 놓치기 쉬운 현장 전문 용어를 정확한 기술 언

어로 번역해 외국인 노동자와의 실효성 있는 소통을 가능케 했다. 마엣은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5년 올해의 벤처상'을 수상했으며, 안전보건공단의 '통·번역 애플리케이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2024년 1월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와 '디지털 안전·보건 시스템 활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마엣의 솔루션이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지원 품목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협회 회원사들이 최우선적으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파편화된 안전을 하나로 잇는 솔루션 파트너

마엣은 경남 소재 공기업과 국립대학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에쓰오일(S-OIL)과의 상생협력사업 등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수많은 성공 사례를 축적 해왔다. 최근에는 서울 및 전남교육청과 보건 분야 시스템 고도화에 협력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다수의 기업 및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오동식 대표가 확인한 현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보건 관리의 '파편화'였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경영시스템 인증, 디지털 시스템 도입, 그리고 사고 발생시의 기술 지도 등이 제각각 분절되어 있어 현장의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마엣은 체계 구축부터 디지털 시스템 도입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얼라이언스(Alliance)체계를 확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기록을 위한 행정의 늪을 걷어내고,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모든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원스톱 안전보건 서비스 전문 그룹'으로의 성장. 그것이 마엣이 그리는 '사람이 다치지 않는 현장'의 최종 설계도이자, 함께 그려갈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다. 🐦



Mini Interview

## “ 기술의 종착지는 결국, 사람의 안전입니다 ”

쭈마엣

**오동식**  
대표



마엣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한 모든 기술 개발'이라는 명확한 미션 아래, 기술의 지향점을 언제나 사람의 안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수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안전한 일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마엣이 꿈꾸는 최종 목표는 명확합니다. 기업과 사업주가 사고에 대한 불안 없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하며, 노동자는 일터로 나설 때와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퇴근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별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동력 삼아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산업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